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4월 9일(주일) 제1437호



2023 고난주간예배 '십자가, 사랑의 완성'.

다음세대를 위해 '달려라풍당!'

4월 23일까지 '달려라풍당'
참가자 모집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 풍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3 달려라 풍당'이 4월 29일(토)부터 5월 28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걷기, 러닝,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 측정이 가능한 운동에 참가하고, '트래킹' 앱에 누적된 거리만큼 CGN을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성막 대작전>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한다. 이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4월 23일(일)까지 네이버폼(QR코드 참고)에서 신청하면 된다.

달려라풍당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한 시상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달려라풍당데이에 참가하는 선착순 1,500명에게 기념 티셔츠를 제공한다. 달려라풍당데이는 4월 29일 서빙고, 양재, 팽택, 대전, 남양주를 시작으로 각 캠퍼스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6월 15일 오후 7시에는 온라인 시상식이 열린다. 최장거리상 5명에게 갤럭시워치5, 최고 나눔상 1명 스마트TV, 차세대어린이상 5명 어린이자전거, 그룹상 등을 시상한다. 최고나눔상의 시상품은 수상자의 이름으로 풍당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기증된다.

문의: 02-796-2243

/ 홍혜영 기자



케이티 파우스트 초청 특강

4월 12일 오전 서빙고, 오후 양재

책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의 저자이자 아동인권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Katy Faus t) 초청 특강이 열린다. 4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요오전여성예배와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수요저녁예배에서 특강한다. '성과 결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케이티 파우스트는 비영리 아동인권단체 'Them Before Us'의 설립자다.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가지는 권리 옹호를 위한 NGO 단체이다. '아이들(Them)을 성인(Us)보다 먼저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케이티 파우스트는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해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강연하고 있다.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주요 판결마다 법정 조력자 의견서를 제출해 아동인권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부활, 세상을 바로 잡으시다

4월 8~9일 부활주일예배에서 '칸타타'
지난주 고난주간예배 '십자가, 사랑의 완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온 누리가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 십자가 승리를 온 맘 다해 찬양하고 기뻐한다. 4월 8일(토)과 9일(일) 온누리교회 부활주일 예배에서 칸타타를 선보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토요주일 1~2부 버금미션콰이어, 일요일 1~4부에서 주찬양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한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일요일 1~4부예배 주의빛 찬양사역팀, 도곡 1~3부 뮤지컬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한다.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4월 3일(월)부터 7일

(금)까지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을 주제로 2023 고난주간예배를 드렸다. 4월 3일(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4일(화)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5일(수)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6일(목)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7일(금)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주연牧사는 "십자가 능력과 사랑으로 이 시대의 죄를 씻어내고, 영혼들을 구원해 참된 평화를 이뤄가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영련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

과 의와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길 목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6일 강부호 목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온전히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4월 16일과 23일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4월 16일과 23일 한다. 서빙고, 양재, 수원, 대전, 인천, 강동 16일과 23일, 부천은 16일에 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기증할 물품을 교회로 가져오면 된다. 서빙고,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대전, 인천, 강동은 목회행정실에 전달하면 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을 기증하면 된다.

문의: 1533-0091

/ 정현주 기자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4월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는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5월 8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4월 15일부터 23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을 한 다음 SNS '카카오톡'에서 '행복드림 2023'을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상세한 안내(집회 안내, 공지알림, 문의 등)를 카카오톡 채널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도 열린다. 4월 24일 온라인(Zoom), 5월 1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중보기도 참여 링크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낼 예정이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에는 세시봉 윤희주, 가스펠보컬밴드 크룩스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3' 채팅창

/ 정현주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육체의 고난만큼이나 아픔을 주었던 것이 사랑하
는 제자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성만찬을 제
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완고하게 거부
하는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취하는 재앙입니
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도록 하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식이 되어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재
앙이 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밤에 어
린 양의 피가 약속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
터 보호한 것을 기념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과 함께하
는 만찬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배반을 이기는 사랑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
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21절).

예수님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
의 주관자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아
셨고, 이 만찬 가운데 유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슬퍼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괴
로워하셨고,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
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23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23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가
까운 친구’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배반할 거라고 예고하
시는 이유는 유다에게 돌아킬 기회를 주시
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경각심
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
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했다’”(25절).

유다가 가증스럽게 다른 제자들처럼 “저
는 아니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은 끝까지 “유다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
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
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는 마지
막 만찬에 앉아 거짓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
사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제자들도 속였습
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죄, 의도, 계획

을 알고 계셨습니다. 경고와 인내에도 불구
하고 유다가 돌아키지 않자 예수님이 또 하
나의 행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
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
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
다”(요 13:26).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에게 끝까
지 돌아킬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의 사랑은 배반을 이기는 사랑임을 보여주
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새 언약의 은혜 이루는 죽음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
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
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
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26~28절).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았
을 충격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곧 언약
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
았을 충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해
할 수 없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말씀의 의미
는 예수님의 몸을 부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
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음료
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
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몸
의 일부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십자가 죽음을 앞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찢겨지시고,
피가 흘러지시는 것은 단순히 억울하고 끔
찍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신 새 언약의
모든 은혜를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
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사 53:12b).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흘리는 피입
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
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
했습니다”(출 24:8).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하
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그
빨간 피를 뿌리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의 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한 백성들에
게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님이 주시는 새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
로 예수님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
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
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
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하
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
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는 통로
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같은 배반자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음식으로 내어주
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배반보
다 큰 사랑입니다. 배반을 이기고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
는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배반이 주는 상처와 아픔도 이깁니
다. 우리도 때로 배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기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배반을 이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30절).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
하셨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기적을 베푸
시고 난 뒤에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들이 놀랄만한 기적 이후 찬송이 아니라 십
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가며 찬송하신 예수
님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죄와 상처도 예
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가 십자가
의 사랑으로 씻어지고, 화목해지며, 연합되
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생명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빅뱅에 의해 우주가 탄생했을 때 함께 생성된 지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였고, 초기에는 생명체 성분인 유기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명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단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한다. 2단계, 유기물 단량체인 아미노산과 핵산이 결합해 단백질과 DNA, RNA 같은 유기물 다량체가 우연히 생성된다. 3단계, 지구 표면 특정 구역에 유기물 다량체가 많이 만들어져 축적된 곳에서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성된다. 4단계, 단세포 생명체가 여럿 모여서 다세포 생명체가 된다. 5단계, 다세포 생명체들이 조금씩 변화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생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각 과정은 우연히 일어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놓는다. 앞으로 몇 차례 이 과정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려 한다. **이 논증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자녀들이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화의 불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논증은 1단계인 무기물에서 유기물 생성 가설(밀러-유리 실험)의 불가능성이다. 밀러는 플라스크 속에 질소, 물,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섞어놓고 고압의 전류와 열을 가하면 그 속에서 아미노산 혹은 핵산이 생성됨을 보여주고, 이렇게 유기물 단량체들이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열역학 제2법칙’ (닫힌 계에서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물질의 자유도이며 이것이 증가한다는 뜻은 물질이 점점 작은 물질로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에 물질을 둘 때 녹슬거나 썩어서 작은 물질로 분해되는 것이 엔트로피의 증가이다. 우리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닫힌 계로 보며 시간이 감에 따라 우주 속의 쓸모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우주 전체가 아닌 지구만을 닫힌 계로 본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새로운 물질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이 그 에너지로 생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잠시 보유할 뿐, 받은 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를 별개의 닫힌 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유기물인 단백질) 없이는 생성 속도가 너무 느려

“생명에 대해 알게 될수록 정보를 모든 생명들에 독특하게 부여한 지적 설계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서 저절로 분해되는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기물 다량체의 축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화론자들은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초기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화석이 발견되는 층이나 더 아래 화석이 없는 층들을 살펴봤을 때, 모두 산소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 지구의 대기에서부터 충분한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 그들의 반론은 기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논증은 2~5단계까지 변화의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누군가의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다. 각 단계에 따라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 정보들이 우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2단계인 유기물 다량체(단백질)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유기물 단량체(아미노산)가 단백질 종류에 따라 수백~수천 개가 일렬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야 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이며, 이들의 결합 순서와 비율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결정된다. 더구나 **각 생명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과 비율은 DNA의 염기서열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우연한 단량체들의 결합으로는 의미 있는 DNA나 단백질을 만들 수 없다.** 아미노산 100개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을 가정해 보자. 이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번부터 100번까지 아미노산 각 위치에 20종 중 하나의 아미노산이 각각 들어갈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1번 아미노산 위치에 원하는 것이 올 확률이 1/20, 2번 위치도 1/20, 이렇게 100번째까지 정확한 아미노산으로 연결될 확률은 (1/20)¹⁰⁰로 발생 불가능한 낮은 확률이 된다.

3단계인 가장 작은 생명체인 단세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세포막과 DNA 염기서열 정보 및 구성 단백질들의 정보가 필요하다. 지구상의 가장 단순한 단세포 세균도 최소한 480개의 단백질과 그 유전자의 정보를 품은 DNA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의 회로에 집적한 파운드리 반도체의 정보보다 훨씬 복잡한 정보가 하나의 단세포 생성을 위해 필요하다. 4~5단계인 단세포에서 다세포의 생명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증식으로 숫자를 불리고, 신체에서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뇌세포, 상피세포, 간세포, 뼈세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앞의 모든 정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생명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게 될수록 이 모든 정보를 모든 생명들에 각각 독특하게 부여한 지적 설계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권리

하선희 집사
(강남E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가족을 설계하셨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물학적 현실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사회적 현실을 가리킨다. 혈연관계가 없는 성인 남성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생물학적 부모들의 학대 사례도 있다. 하지만 통계상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은 혼인 상태의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다. 혈연관계

가 없는 성인 남성과 한 집에 살더라도 그 부모가 혼인 상태라면 아동학대 위험은 급감한다. 이처럼 아동복지에 관해서라면 생물학과 결혼제도 둘 다 중요하다.

얼마 전, 대만의 남성 동성 커플이 캐나다에서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대리모로 고용해 각각 자신의 친자를 낳을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이에 대해 아동인권 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는 “성인들이 생물학적 친자를 갖는다는 것을 이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막상 아이들에게는 생물학적 친부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라고 질문해 이 중적인 잣대의 모순을 지적했다.

사실 우리는 직관적으로나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물학적 연계를 잃은 아이들을 품고자 하는 양부모들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성형명이 퍼뜨린 거짓말에 물든 문화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점점 더 무시하고 거부한다. 아이들보다 성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보다 어른들의 욕구에 헌신한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롬 1:18) 것이라 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선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미국의 몇몇 주에서 혈연관계가 없고, 입양절차가 없어도 생식세포 기증,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를 얻은 성인을 ‘부모’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2015년 동성혼이 합법화되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조차 결혼할 권리를 넘어 이제는 아이를 가질 권리도 주장하게 되었다. 많은 주에서 한 아이의 친부모 동성 파트너가 그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 절차 없이 그 동성 파트너를 아이의 부모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의미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친엄마나 친아빠를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동성 커플과 함께 사는 아이는 항상 친엄마나 친아빠 또는 둘 다 않는다. 생식세포 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을 선택한 독신의 자녀도 한 부모를 반드시 잃게 된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불행 때문이 아니라 성인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다.

동성 커플과 함께 사는 아이는 항상 혈연관계가 없는, 적어도 한 명의 성인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이성 커플 이혼율은 19%인 반면 레즈비언 커플의 이혼율은 34%로 동성 커플의 아이들은 가정 붕괴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아이들은 가능하다면 친부모와 함께 할 필요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결혼’과 ‘가족’이라는 법적 의미를 바꾼다고 거짓말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비극을 만들 뿐이다. 한 아이가 부모를 잃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고, 온 사회가 부모의 상실을 장려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한국이 부모의 상실을 장려하는 미국의 사례로부터 배워서 다양한 가정이라는 모래 위가 아니라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권리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를 바란다.

케이티 파우스트가 4월 12일 서빙고 수요일여성예배(오전 10시 30분), 양재 수요일예배(오후 7시 30분)에서 특강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과 결혼,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영하는 가장 아동 친화적인 전통가족을 지키는 꿈을 갖기를 소망한다.

부활절에 함께하면 좋은 영화 그리고 음악

“오직 예수께만 참되고 진실한 평화가 있나니”

카라바조 ‘엠마오의 저녁식사’, 비발디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최정주 권사
(이수공동체,
아트앤뮤직큐레이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에 함께 하면 좋은 영화와 음악을 감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식사’와 비발디의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를 소개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 시큰둥한 여관 주인

그림 속에 네 사람이 보인다. 식탁에 둘러앉은 예수님과 두 제자, 그리고 엠마오의 여관 주인이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한 바로 그 제자들이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즈음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눅 24:13-18).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처형과 부활 사건을 왜 당신은 모르냐고 힐난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었다. 그 제자들은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뒤늦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제자와 깜짝 놀라 양팔을 벌리고 충격 받은 제자가 보인다. 그런데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눅 24:31).

런던의 내셔널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 ‘엠마오의 저녁식사’는 바로크 시대 최고 화가 카라바조(Caravaggio)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작품이다. 제자들이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훌륭하게 포착했다. 그들의 놀라움이 그대로 전달된다. 한 사람은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설 찰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양팔을 벌리고 의아한 표정이다. 덩수룩한 수염, 주름진 얼굴, 누더기 옷에서 알 수 있는 평범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식사’ (1601년, 런던 내셔널갤러리).

한 노동자 제자들의 당황이 엿보인다. 구원은 평범한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암시다.

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라바조는 키아로스쿠로(명암의 대비)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왼쪽에서 강한 빛이 예수님과 오른쪽 제자의 얼굴에 떨어진다. 재미있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허리띠에 집어 넣고, 이 사건을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여관 주인이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건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세상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삼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모른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마 13:14b).

담담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평안하게 주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카라바조가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그려온 방식과 다르게 수염 없고, 젊고, 깨끗하고, 후광이 없게 그렸기 때문이다. 과연 카라바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생동감 넘치는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한 제자들과는 달리 이 그림을 보는 관람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이 구절의 주석을 보면 단순히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도가 아니라 “불타지 아니하

냐”라고 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항상 격정적이다. 평온해 보여도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든지 모두 기적이다. 이날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눈을 밝게 해주셨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바삭하게 다려진 것 같은 흰색 식탁보 위로 떨어지면서 식탁 위의 정물들을 놀랍도록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비추고 있다. 빵 두 쪽, 닭고기,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는 과일바구니가 보인다. 바로 예수님이 음식을 축사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다. 바구니의 그림자에 물고기 꼬리가 보인다. ‘익투스(ΙΧΘΥΣ, Ichthys)’,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카라바조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익투스를 숨겨놓음으로 이 그림이 그려진 17세기 기독교도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참 소망

부활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음악이 있다.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Nulla in mundo pax sincera RV630)이다. 모테트(Motet)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성악곡의 하나이다. 비발디의 모테트를 천상의 소리와 같은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Emma Kirkby)의 음성으로 들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해서 그가 주시는 참 평안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QR 코드 참고).

비발디(A.Vivaldi)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사제였고, 작곡가였다. 오페라, 종교음악, 기악 협주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 작품을 남겼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는 영화 ‘샤인(Shine, 1996년)’의 주제가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테트는 가사 대부분 라틴어로 쓰인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는 성악곡이다. 교회 전례와 연관성은 있지만 전례 음악의 핵심은 아니다. 이 곡은 작자 미상의 라틴어 종교시(詩)에 음악을 붙인 곡인데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저음악기들로 반주하며 아리아-레시타티보-아리아-알렐루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아리아가 대표적인 곡이다. 첫 번째 아리아의 라틴어 가사 해석을 보면 이렇다.

“세상엔 참 평화 없어라
괴로움이 없는
참 평화 없어라
오직 예수께만
참되고 진실한 평화가 있나니
불안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영혼은 만족을 얻나니
그의 유일한 소망
순결한 사랑이여”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음악을 듣는다. 고난을 이기고 참 평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들처럼 깜짝 놀라며 참 평화가 내게 이미 있음을 깨닫는다. 내 옆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본다.

이제 영원히 놓치지 않을 평화와 평안을 느낀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느껴지는 곡이다.

다시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투영된다. 그때 누군가 내게 “어디에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 봐야 한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이다. 절로 눈물이 난다. 내 죄를 사하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낀다.

또 다시 그림으로 돌아온다. 카라바조는 예수님 건너편에 내가 앉을 자리를 남겨 두었다. 떨어질 듯 위태롭게 보이는 테이블 끝에 놓인 과일바구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과일바구니를 두 손으로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말씀에 함께 빠져 들어보자.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집약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구절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 이비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 적용되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이 세상을 무조건 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는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식의 영지주의적 해석으로 몰아가려는 경우도 있다. 이 위대한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키워드인 ‘세상’이라는 단어를 세밀하게 이해해야 한다. 세상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서로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정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요 1:10)와 부정적인 의미(요 15:18-19) 두 가지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상태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진 단어가 성경에서 ‘세상(헬라어, 코스모스/코스몬)’이라는 말로 혼용되다 보니, 앞뒤 문맥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학적 원리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만든다. 예컨대, 서구의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한국 교회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외함이 결핍된 사랑의 강조는 오히려 죄와 심판의 하나님을 간과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간혹 끔찍한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거나 무감각해져 버리고도 사랑 타령만 읊조리는 그

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크리스천은 오랜 가부장적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보다 종말론적이며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거룩과 공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두려운 하나님만 느끼게 해서 정작 성경의 핵심주제인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두 가지 태도는 십자가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의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의미다.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족으셨다는 의미까지 사랑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제대로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조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다. 거룩한 사

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답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엄청난 짓값을 지불하셨다. 이로써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된 것이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성품이 양립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러한 성품이 모순되거나 갈등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 사랑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두 가문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4월 10~16일
사무엘하 1:1~3:39



목상포인트 1

：〈사무엘상〉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사무엘하〉는 다윗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

으로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비극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애가를 부른다. 다른 사람의 죽음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실지 묵상하자.

▶사울 진영에서 도망 온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배를 전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 곧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그 청년을 처단한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부른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했고, 블레셋과 맞서 싸웠으며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다. 한편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 준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인정한

다. 그는 전사한 백성을 위해서도 슬퍼하며 금식한다.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다운 성숙한 면모다.

목상포인트 2: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자신의 행보를 하나님께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 성읍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다. 한편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다. 긴장관계에 있던 두 왕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다윗과 유다 족속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전쟁의 결과에 담긴 하나님 뜻을 묵상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이후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다. 그리고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화친을 요청한다. 한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두 진영이 대립하다가 기브온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 결과 다윗의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포함해 20명이 죽은 반면, 아브넬의 사람은 360명이나 죽는다. 이로써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

목상포인트 3: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의 정치적 행보가 이어진다. 아브넬의 야망,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통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주시기 시작

하신다. 사람과 상황,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다윗의 아들들 명단은 그의 가문이 하나님 은혜로 강성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간했다며 그를 질책한다. 이에 화가 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그와 교섭을 시도한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 몰래 죽인다. 다윗은 자신이 요압을 시켜 아브넬을 죽였다고 의심받을 상황에 처하자,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은 무관함을 밝히며 애도를 표하고 아브넬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다. 이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는 계기로 작용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다윗은 자신을 오랜 세월 괴롭힌 원수 같은 사울,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했다. 다른 사람의 죽음과 비극을 접할 때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이후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일이 무엇인가?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려 주셨다. 인간적 술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고 치료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많이 아픕니다. 외할아버지는 협심증, 부정맥으로 자주 입원하시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며칠 뒤 뇌출혈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두 분을 계속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보호해주시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잘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치료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많이 아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가족이 되게 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라떼는 말이야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삶이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서 실패감과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우울합니다. 저에게 용기와 조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에 없던 삶의 제약이 엄청났다. 한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등교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사업이 부진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모임이나 여가 활동이 불가능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역대 초유의 상황에서 청년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고, 그래서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우울 증에 걸리기도 했다.

성경 인물 중에도 실의의 고통 속에서 고생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한다. 엘리야는 지독히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부부에 대항해 바알신

사제 850명을 갈멜산에서 몰살시켰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세벨에게 쫓기게 된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 은신해야 했다. 그는 낙담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 나이다”라고 했다.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 달라고 기도했다. 다윗도 실의 속에 몸 부린 친 시기가 여러 번 있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자 쫓는 사울 왕으로 인해 괴로움과 싸워야 했다. 다윗이 자신의 고뇌, 고독, 적들에 대한 두려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 여러 아들을 잃은 슬픔과 씨름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경 속 고난을 받는 자의 대명사인 욥의 사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의인 욥은 뜻도 모르고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견디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 자식들의 사망, 재산 상실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한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는

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실의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경의 일화는 모세, 예레미야 등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이 성경의 인물들은 아마도 실의에 빠진 나머지 우울증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의에 빠진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의문을 제기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인간들을 외면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통 받는 자녀들에게 막연히 “견뎌내라, 버텨내라”고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자녀가 겪는 고통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건져 올리신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실의에서 건져내고,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시간은 물론이고, 어두운 시간, 심지어 영혼의 깊은 밤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세계가 격변하고, 전쟁과 역병 등으로 인류가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후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통해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 평강을 누리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확인하고, 소망과 비전을 품자. 평강과 소망, 비전을 통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 게 만유의 구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청년 크리스천들의 특권이다.



차두희 멘토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이상적 가족과 포용적 태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행사나 명절을 보내고 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가’에 대한 자문을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이 있다. 가족은 늘 행복하고, 항상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등 가족들이 모이는 시점에서 화목과 사랑보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부딪치는 일이 많이 없지만, 모이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스파크가 튀는다. 급전적인 피해와 손해를 주고받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일로 심신이 지치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도 모이면 한 마음을 품고 얼굴을 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 모이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암묵적 목표가 주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웃는 얼굴보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황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상적인 가족, 행복한 가족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

이상적인 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화가 잘 통한다. 서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이고 행복하다. 서로 안부를 묻고 연장자라고 해도 이야기를 혼자 독점하지 않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격려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당연히

상대와 주고받는 언어에서 마음이 상한다. 적절한 말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긁는 칼귀 같은 도구로 사용된다. 의외로 가까운 가족 사이에 말을 거르지 않고 내뱉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마음이 아플지, 아프지 않을지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분위기의 이야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매우 이상적인 가족 분위기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대화 영역이 가족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논리와 이성 못지않게 감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다. 여러 가지 사건과 원인으로 인해서 가족이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쌓아놓고 살기도 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소소한 섭섭함이나 격한 미움까지 품고 뒤틀린 관계를 유지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 가족과 어쩔 수 없이 연락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가슴을 지나 입 밖으로 뱉어나오게 된다. 감정은 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 섭섭했던 마음까지 가족구성원에게 표현하고 사과와 용서, 다시 수용하는 작업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고, 유

머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놀이와 활동이 포함된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놀이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웃음과 즐거운 마음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매우 이상적인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스포츠나 놀이 등 상대와 주고받는 다양한 활동에서 더 깊은 연결감과 하나됨, 가까워짐을 경험한다. 싫은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좋은 사람과는 함께 하는 시간이 몹시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가족 간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여가를 보내거나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느슨해져 있던 감정 고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넷째,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강압적인 분위기의 가정일수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경직된 분위기와 상명하달식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된다. 억압이 지속되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이 될 것이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이 되면 행복과 거리가 먼,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먼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이상적인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신의 가족은 여전히 갈등이 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밀도를 유지하는 가족이며, 종종 크고 작은 마음의 속상함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면 가족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의 차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면 즐거움보다 부담감과 불편함, 마냥 행복하지 않은 쓸쓸함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 행복한 가족, 이상적인 가족의 다양한 특징과 모습들이 결집되어 있어도, 자신이 꿈꾸었던 가족의 모습에서 다소 동떨어진 처지일지라도, 그 모습까지 수용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은 반드시 이래야 해’, ‘형제지간에는 반드시 이래야 해’, ‘가족은 늘 웃음꽃이 만발해야 해’ 등의 이상적인 기대에 자신을 속박하기보다 ‘현재의 모습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좋다. ‘그럭저럭 유지되는 가족 관계라도 괜찮다’는 수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가족이라도 그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관계라는 기대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겉질이 쓰다고 해서 열매까지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가족이라고 우선 현실을 수용한다면 그다음 계단을 향해 나아가갈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눅 15:11~32).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창조질서 회복 노력은 계속된다!

2023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종료

2023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막을 내렸다.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어졌다.

40일 동안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에 해당하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생명과 환경,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이면지 활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헌혈하기’,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기 영상 시청하기’ 등을 했다.

이윤철 성도(OEM공동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혈과 탄소 절감을 위한 수도꼭지 닫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도시락 싸기를 실천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종료되었지만,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사진과 함께 후기(글자 10포인트 기준 A4 30줄)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사진과 후기는 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상식이 된 진화론, 창조신앙으로 다시 보기’

4월 25일~5월 2일, 노휘성 소장 온라인 강의

온라인 세미나 ‘상식이 된 진화론, 창조신앙으로 다시 보기’가 4월 25일과 5월 2일 열린다. 당연해 보이는 진화론과 완벽해 보이는 과학 앞에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도록 도와준다.

노휘성 소장(YESEI창연구소, 미주창조과학선교회 강사)이 ‘창조를 버린 사람들’, ‘화석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계시 의존적 사고’, ‘화석

의 연대 문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창조의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교육하기 원하는 부모, 교사, 교역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 4월 1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더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71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0일부터 매주 수 오전 10시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9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선한울타리 세미나

4월 16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선한울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6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진행된다.

선한울타리사역팀은 보육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고 있다. 보육원 퇴소 청년

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보육원 보호아동들에게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선한울타리 세미나에는 보육원 퇴소 청년 등 위기 청년을 돕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대학청년부 공동체별 수련회

4월 21~23일 W청년부, J4U청년부

대학청년부에서 공동체별 수련회를 한다. 4월 21(금)부터 23일(일)까지 W청년부와 J4U청년부가 수련회를 한다. W청년부 수련회 ‘The Word’는 영산수련원(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40)에서 진행된다. 2박 3일 동안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독하고 나눈다. 정한호 목사가 설교한다.

J4U청년부 수련회 ‘Balance(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하여)’는 소망수양관에서 열린다. 김현미 목사, 김명선 전도사, 송동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대학청년부 수련회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570-7521

4월 화요성령집회 ‘영적 모멘텀’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4월 화요성령집회가 ‘영적 모멘텀’을 주제로 이어진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4월 11일 정한호 목사 ‘건고한 믿음’(마 7:21~27), 18일 최성민 목사 ‘온전한 인내’(약 5:7~11), 25일 이서진 목사 ‘진실한 사랑’(요일 3:13~24)을 주제로 설교한다.

/ 홍하영 기자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 모집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국내 이주민 선교에 관한 5대 관점과 권역별 종교 상황, 문화, 관습들을 살펴 보면서 선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문의: 010-5780-8410

파키스탄국제대학(PGI) 교직원 모집

파키스탄국제대학(PGI)에서 자비량 교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수학, 통계학 전공 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전산실장 및 웹디자이너, 한국어강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자격증 1~3급 소지자)이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페르시아와 중동 인종 육성에 뜻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강의 외 모든 업무와 강의는 영어로 진행한다.

파키스탄국제대학은 파키스탄 최초 외국인이 설립하는 대학교다. 지난해 12월 파키스탄 상하원 공동의회에서 대학 정관이 승인되어 올해 9월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

문의: 010-8201-7565, jsjstar2@hanmail.net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 기도회

4월 17일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두란노어머니학교 4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2-2182-9114

말씀과 역사 현장 탐사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3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편’이 1차 6월 2일(금)부터 8일(목)까지, 2차 7월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3차 9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된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구약성경과 사복음서를 공부한다.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인문학도 공부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스페인편’은 11월 2일(목)부터 11일(토)까지 진행된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교회사는 ‘예수회’, ‘종교재판소’, ‘반종교개혁’, ‘유대교 르네상스’를, 세계사는 ‘신대륙 발견’, ‘스페인제국 역사’, ‘코르도바&그라나다 이슬람 역사’, ‘서양 건축&미술사’를 주제로 공부한다.

문의: 010-4902-1022

4월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16일 / 시간: 15:30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배선혜 신명숙 신인석 우 훈 이순자	양진용 유선영 이중숙	강남D 김수잔 민윤경 백선옥 송 란 이지영	이현일 홍종기	도곡 강주희 박승용	서초C 박경숙 이연주	현정순
강남B 김범호 김선희 김현영 방홍복 안규원	강남C 김민성 김보화 김은옥 김지연 양대용 이종원 이지은	강남E 김예선 김지원 김현선 오석현 이유나	경기A 곽상경 박성환 송미리 이수영 이정화 장경옥 과천의왕 이정현	분당B 이윤신	송파B 강신애 김성돈	양재B 김경숙 김명신 박정미 이혜광 정희복
				서초A 박유미	양재A 김유경 박순란 송혜영 이병근	푸른누리 곽태준 김준형 박지혜 정세철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원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수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앨버틴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8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글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figasisinsaitab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8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김창수 김승환 김병배 김오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옥환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오A 박성은B 박성천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천
박천종 박형준 배해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선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천
신원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철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비호 조준욱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중현 최현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운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최재준 카와무
라 요시키

●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용삼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마추나눔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성루아눔 사가르 에리카아를스투스

윌리엄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유치연 제인탕
존페이즈 채제이미 최정현 하효경

● **전도사(파트)**

강현구 권대식
김태성 김하람 김도배 김동규
권여람 김가희 김반석A 김반석B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옥환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오A 박성은B 박성천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천

박천종 박형준 배해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선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천

신원석 스티브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철 제지훈 조동욱
조병홍 조비호 조준욱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중현 최현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운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신미 최재준 카와무
라 요시키

●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김남철

김성인 김성순 김수광 김 완
김용성 김 원 김용배 김의득

김민영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준근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홍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종실 문현구

문영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성태 박용복 박성근 박석호

박영태 박용복 박성근 박석호
박태성 배 문 배남인 박대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열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식 송영범 송영태 송영태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임대진

오성익 오영환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유 형

윤기웅 윤성열 유은준 윤영성
윤영오 윤현우 윤경덕 이상기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삼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종근 이영하 이우근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준성 이창남 이 철
이창원 이현호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창하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문규 정영관 정보원 정승룡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희훈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영 정진하 정주철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조수일 정은영
차승철 차준구 차준찬 전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순길
최진성 최장규 최창자 최종길

최희영 편무하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순호 함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택표 홍병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황제규

●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곽화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형
김제훈 김경도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연 김두진 김민산 김명세

김영호 김성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문갑 김진관

김영순 김영욱 김영욱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영 김재일 김경민

김준영 김중환 김중호 김준규
김지훈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경 김형준
김재수 김희보 김희준 김희준

남명현 남상길 남상규 남윤창
남정진 남정진 남기홍 노하수

라성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대현 박동현 박두원
박영국 박병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우형 박일규 박일민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환 박현규 박형민 박용근

박흥선 방찬교 배기영 배승호
백종진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순태용 순동성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학철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갑섭 심호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양창식 양 웅

양준홍 양준홍 양준홍 양준홍
오범규 오상복 오성훈 오성태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유석우 유석주

유수민 윤영자 이경호 이경준
이광순 이규전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익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서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정근 이재열 이재환 이하일
이재필 이한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영
임현태 임호영 임원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장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성기 정영주 정영태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영만 정영화
정일영 정재필 정진호 정대명

정우정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창규 조재광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영재 최주관 최한우 최한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현 한복규

최필우 최환식 한창희 한충희
한필규 함일섭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남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황성룡 황윤일 황성훈 황상윤

●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환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김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정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국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정훈 이경호 이미현 이미선

이성원 이은택 이우영 이영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홍 전상정

전종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환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 **반주자**

김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김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정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국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정훈 이경호 이미현 이미선

이성원 이은택 이우영 이영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홍 전상정

전종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환 허 민

이인용

이정근 이재열 이재환 이하일

이재필 이한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영

임현태 임호영 임원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장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성기 정영주 정영태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영만 정영화

정일영 정재필 정진호 정대명

정우정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창규 조재광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영재 최주관 최한우 최한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현 한복규

최필우 최환식 한창희 한충희

한필규 함일섭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남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황성룡 황윤일 황성훈 황상윤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광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환

채수삼 최장철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김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정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